

# 불벌더위, 온실 내 ICT 장비에 악영향

### 내구성 현저히 떨어질 우려 감지기, 직사광선 피해 설치 제어용 컴퓨터, 고온 상태 계속 유지되면 덮개 열어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일 이상기온과 불벌더위에 대비해 스마트(지능형) 온실에 구축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고,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여름철 불벌더위가 계속되면 온실 내부 온도는 외부보다 높아져 온실 내 설치된 감지기나 제어용 컴퓨터 등의 내구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스마트 온실에 사용하는 감지기 장비의 동작 온도 범위는 대부분 영하 30도에서 영상 60도로 제한한 온도 관리가 필요하다.

감지기 장비는 직사광선을 피해 설치해야 온도 감지기가 잘못된 값을 전송해 발생하는 개폐기와 차광막 등 구동기 오작동을 막을 수 있다.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휴작기에는 감지기 장비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온실 내부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pH 및 EC 감지기 등은 전원을 차단하고 분리해 보관한다. 감지기 정보 수신과 구동기 제어를 위한 A/D 보드는 스위치(전환기)와 릴레이(전기회로를 열거나 닫는 구실을 하는 기기) 등 열이 발생하는 부품으로 구성돼 있다. 온실 내부 온도가 40도가 넘으면 외부 덮개를 열고 선풍기 등으로 열기를 빼내는 것이 좋다.

온실 제어용 컴퓨터는 중앙처리장치, 그래픽카드, 메인보드(본기관) 등 열이 많이 발생하는 부품으로 구성돼 있다. 여름철 기온이 30~40도가 넘으면 컴퓨터 내부 온도는 60도

이상까지 올라 감지기 시스템이 멈추고 이로 인해 작물이 고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온실 제어용 컴퓨터는 바람이 잘 통하고 30도 이하인 곳에 설치하고, 고온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덮개를 열고 선풍기로 내부의 열기를 강제로 배출해 시스템이 멈추는 것을 막는다.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강금춘 과장은 "국내 농업생산업의 약 13%를 차지하는 시설원예 산업의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기술이 더욱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불벌더위 대비 현장 기술자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에서 딸기 스마트 온실을 운영하는 농성욱 농업인은 "여름철 온실에서 사용하는 감지기나 제어기의 관리 방법을 알게 돼 스마트 팜 정보통신기술 장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속되는 폭염에 급증한 에어컨 판매량. 여름을 짧은 장마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에어컨 소비도 늘어나는 추세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 에어컨이 진열되어 있다.

## 3D펜으로 나만의 입체 제품 만들어볼까?

### 메이커스페이스 '뚝뚝365', 청소년 비즈쿨 대상 메이커 교육 참가학교 모집

한국특소산업진흥원(원장 방윤혁)과 전북북도가 함께하는 메이커스페이스 '뚝뚝365'에서는 전북지역 청소년 비즈쿨 대상 메이커 교육에 참가할 학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 비즈쿨 대상 메이커 교육'은 전북지역 21개 비즈쿨 학교를 대상으로 메이킹 문화 확산과 및 청소년 창의력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 1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5학년 고교생을 대상으로 각각 구분해 진행되며 ▲3D펜을 이용한 나만의 입체 제품 만들기 ▲3D프린팅 모델링 체험 및 후가공 작업을 통한 테라리움 만들기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레트로 게임기 제작 실습으로 구성돼 있다.

메이커 교육 참가학교는 10개교에

한해 선착순 마감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 메이커스페이스 '뚝뚝365' 홈페이지(www.maker365.kr) 또는 전화문의(063-219-3597)로 확인할 수 있다.

오제하 한국특소산업진흥원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장은 "이번 청소년 대상 메이커 교육이 메이커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창의적 사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LX공사, 지적분야 친환경 'ESG경영' 앞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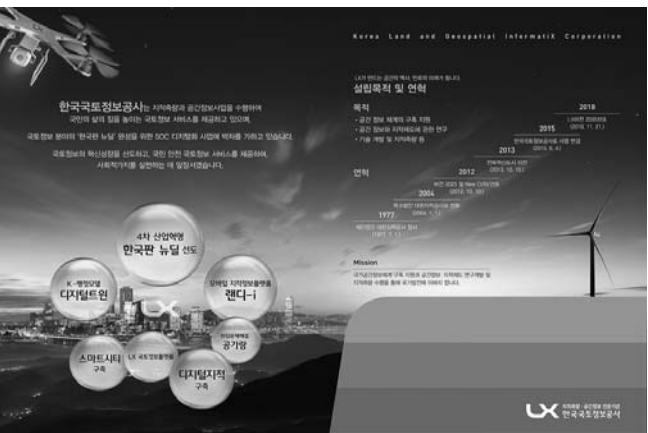
### 지적축량결과부 홀더 40만매 친환경·재활용 소재로 전환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가 친환경 3대 원칙(Reduce, Replace, Recycle)을 공공서비스의 환경분야 사회적 책임까지 확대해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선다.

LX공사는 기존에 국민에게 지적축량을 실시하고 결과부와 함께 제공하는 지적축량결과부 홀더를 친환경 소재로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LX공사는 ESG 경영 실현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홀더 40만 매를 기존 폴리프로필렌(opp) 재질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제작해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적축량 분야에도 친환경 체계로 전환해 플라스틱에서 배출되는 연간 48톤의 탄소가 저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축구장 8개 면적(약 6ha) 30년 생 편백나무 720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동등한 규모다.

LX공사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 "우리 공사 업무 전반에 걸쳐 ESG 사

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 환경조성과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위메프·히밥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름나기' 커머스

### 실시간 방송 진행되는 동안 1만원 이상 물품 구매하면 30% 할인 라이브 쿠폰 발행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이 도내 기업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판매 촉진을 돕기 위해 위메프·유명 크리에이터 '히밥'과 함께 3일 오후 8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먹는 게 삶의 낙인 '떡볶이'를 주제로 히밥(구독자 94.6만명, 평균 조회수 63.6만회/최근 30개 동영상 기준)과 함께하며, 방송은 오늘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된다. '건강한 여름나기'를 테마로, 우수 전북산품 3가지 ▲국내산 생닭 ▲풍천 민물장어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를 활용하여 '여름 보양식 밥상'을 차려 먹방을 선보인다.

첫 번째 주자인 국내산 삼계탕은 주문 생산 시스템으로 열리지 않은 신선한 상태로 발송되며, 삼계탕 닭과 닭볶음탕용 닭을 취향에 맞게 선택 구매할 수 있다. 닭볶음탕용 닭은 부위별로 절단된 상품으로 손질이 간편하며, 양념과 가공처리가

되지 않아 닭볶음탕/치킨/찜닭/오븐구이/에어프라이어 구이 등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 가능하다.

두 번째 풍천 민물장어 또한 국내산으로 꼼꼼하게 손질하여 마리마리 진공 포장한 상품이며, 직접 개발한 소스 2종(데리야게, 고추장 맛)을 무료로 제공한다. 마지막 주자인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는 설상에 절인 듯한 단맛을 내는 이색 토마토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품이다. 짙은 듯한 무더위에 맞서 신선하게 아이스크림 등빙하여 배송할 예정이다.

실시간 방송이 진행되는 1시간 동안 1만 원 이상 구매 시 30% 할인 쿠폰을 수 있는 라이브 쿠폰을 발행하며, 방송 시간 외에도 10% 상시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상품별 최우수 구매 후기 작성 고객 3명을 추첨해 삼성 그랑데 건조기를, 우수 구매 후기 작성 고객 3명에게는 아이패드를 선물한다. 이외에도 북날을 기념해 10명을 추첨해 치킨 쿠폰을 선물한다.

조지훈 경진원 원장은 "비대면 쇼핑채널로 각광받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뿐만 아니라 소비자와의 소통도 더불어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하반기 채용 필기전형, '여기서' 준비하세요

### 전북도 일자리센터, NCS 취업역량강화 교육과정 참여 취업준비생 모집

### 온라인 강의·자기소개서 면접 전략으로 구성돼

상반기에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던 많은 기업들이 여름방학 이후로 채용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번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는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전북도와 전북도일자리센터는 도내 미취업 구직자를 대상으로 2021년 NCS 취업역량강화 교육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NCS 온라인 강의 ▲자기소개서 ▲면접 전략으로 구성됐다. 또한 최신 취업 트렌드 및 취업 전략 강의도 준비돼 있다.

교육 참여자들은 에듀넷 소속 유명 강사들의 온라인 강의를 3개월간 무료



로 수강할 수 있다. 나아가 우수 참여자 30명에게는 모의면접 기회가 주어지며 본인의 실력을 파악하고 강사의 피드백을 받으며 합격의 문으로 성큼 다가갈 수 있다.

전라북도일자리센터 관계자는 "NCS 취업역량강화 교육과정은 4년제 진학하고 있는 사업으로 많은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연도에도 많은 결실을 거두겠다"고 전했다.

도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13일 오후 6시까지 '전라북도 일자리센터 포털(www.1577-0365.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대표번호(1577-0365) 또는 담당자(063-280-1008)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국민연금, '국민제안 이벤트' 31일까지

### 응모 주제는 '국민연금 제도, 서비스·기관 운영 분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국민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일부터 31일까지 국민제안 이벤트(Do Dream)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민 중심의 제도운영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국민제안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해왔다.

국민제안 이벤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주제는 '국민연금 제도 서비스 및 기관 운영 분야'다.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지사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제출된 국민제안은 효과성, 실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9월 말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며, 선정된 제안자들에게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울러 업무효율도가 높은 아이디어는 향후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연금 제도발전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국민제안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연금제도와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농가 교육·컨설팅 농기계 공동구입 지원

### 농식품부, 내년 발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대상자 공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2022년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발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 동안 ▲농가 교육·컨설팅 등 역량강화 ▲농기계 공동구입·이용 등 생산비 절감 ▲저온저장고 건립 등 품질관리를 위한 비용이 맞춤형으로 지원(개소당 총사업비 10억원)된다.

채소특작류 포함, 과수 주산지에서 공동경영체를 조직해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지역·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사업을 신청하면,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사업추진 역량 등을 평가해 최종 사업대상자가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시장 개방에 대응해 우리 발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며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발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산지 시·군·구와 농협, 농업법인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건강한 여름나기'

### 전북은행, '무더위 쉼터' 이달 한달동안 운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 고객 및 지역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도내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지역민과 고객을 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냉방시설을 갖추고 시원한 생수 등을 제공하여 무더위 속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더위 쉼터'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도내 전북은행 영업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8일까지 단축 운영으로 인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며, 차주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이용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

또한 무더위 쉼터 이용 시에는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비해, 쉼터 내 거리두기 강화는 물론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누구나 편리하고 부담 없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과 고객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